

『신명사도(神明舍圖)』 복원 및 디지털화

이 상 곤*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향후 전개될 한국학 도상 복원작업의 일환으로 남명 조식의 사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명사도』의 원형복원 및 디지털화를 구축·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은 의도에 의해 진행되었다. 첫째, 판본에 따라 도상의 형태가 상이한 『신명사도』를 모두 복원하고 디지털화하여 가독성(可讀性)을 극대화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도상에 대한 접근성을 수월하게 한다. 둘째, 완성된 도상들을 표준도로 제시함으로써 상용성을 증대하고 작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한다. 셋째, 복원된 도상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교육용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연구자들에게도 제공한다. 넷째, 향후 전개될 『한국문집도록』 편찬사업의 선행과제로 활용한다.

핵심어 | 남명, 조식, 신명사도, 도상, 복원, 디지털화, 조형예술미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조선조 성리학자들의 문집에 산재해 있는 도상을 복원하여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결과물 가운데 남당 한원진의 성리학 도상 가운데 그 일부와 양촌 권근의 『입학도설』 전집의 도상을 학계에 소개한 바도 있다.¹⁾

* 李相坤. 원광대학교 철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12. 10. 31. 심사완료일 : 2012. 12. 4. 게재확정일 : 2012. 12. 7.

1) 이상곤, 『18세기 기호유학을 이끈 호학의 일인자 한원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604~625쪽 ; 『입학도설(入學圖說) 전집(前集) 도상(圖像) 복원과 디지털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12집 1호, 2011, 156~176쪽 참조.

이 작업은 현재 DB로 제공되는 한국학 관련 자료들²⁾이 도상에 관한 한 비주얼시대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아날로그형태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도상 자체가 지니는 조형예술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물론이고 그림의 가독성(可讀性)마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그리하여 첫째, 원도의 선명도를 극대화함으로써 도상의 질적 수준을 고차원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 둘째, 원도가 지닌 조형미를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원도 그대로의 이미지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셋째, 원도의 훼손된 그림과 글자가 완벽하게 복원됨으로써 도상 자체의 의미 파악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고, 넷째, 원도의 크기가 일정한 수준으로 표준화됨으로써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보다 높은 차원의 수월성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³⁾

필자가 이번에 수행하는 과제는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의 「신명사도(神明舍圖)」이다. 남명도 많은 도상을 남기고 있다. 「신명사도」를 비롯하여 『학기유편(學記類編)』에 보이는 도상만 하더라도 24개에 이른다.⁴⁾

2) 현재 대표적인 DB 제공은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nl/index.jsp>),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http://www.ugyo.net/>),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성균관대학교 한국경학자료시스템(<http://koco.skku.edu/index.jsp>), 성균관대학교 한국유경편찬센터(http://ygc.skku.edu/index_2012.jsp),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index.jsp>)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이상근, 「입학도설(入學圖說) 전집(前集) 도상(圖像) 복원과 디지털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12집 1호, 2011, 177쪽 참조.

4) 『학기유편』에 수록된 도상(일명 「學記圖」)도 판본에 따라 그 개수가 다르다. 新本의 경우는 10개의 도상(三才一太極圖, 誠爲太極圖, 天人一理圖, 心統性情圖, 忠恕圖, 誠敬圖, 審幾圖, 爲學次序圖, 博約圖, 易書學庸語孟一道圖)이 수록되어 있으나, 舊本 「만력 정사본」의 경우는 상편에 22개(龍馬圖, 洛書圖, 第三圖, 八卦次序圖, 八卦正位圖, 三才一太極圖, 太極與通書表裏圖, 理氣圖, 天理氣圖, 人理氣圖, 心統性情

여기에서 특별히 「신명사도」에 주목하는 것은 그림이 실려 있는 『문집』의 판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후대에 제작된 도상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도상에 대한 정리 작업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통해 앞에서 열거한 복원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신명사도」에 대한 그림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 「신명사도」의 이해

남명이 살다 간 16세기는 조선 지성사(知性史)에서 볼 때 사림(士林)의 성장기로 규정할 수 있다. ‘사(士)’ 곧 ‘선비’란 학식을 익힌 지식인이고 덕망과 예절을 익힌 군자이며, 관리가 되던 야인(野人)으로 있든 의로운 행위를 하는 지사(志士)이다. 선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유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기(修己)이다.

圖, 天道圖, 天命圖, 仁說圖, 忠恕一貫圖, 小學大學圖, 敬圖, 誠圖, 聖賢論心之要圖, 博文約禮圖, 不動心圖, 易書學庸語孟一道圖), 그리고 하편에 2개(心爲嚴師圖, 幾圖), 도합 24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만력 정사본」에 의거 24개라 하였다. 「만력 정사본」의 凡例에 의하면, 24도 가운데 龍馬圖, 洛書圖, 八卦次序圖, 八卦正位圖, 仁說圖(이상 朱子 作), 太極與通書表裏圖, 聖賢論心之要圖(이상 林隱 程復心 作)의 7도를 제외한 나머지 17도는 남명이 스스로 그린 것이라 한다. 하지만 최근, 이승환 교수는 일본 동경의 國立公文書館에서 그동안 일실된 것으로 여겨 왔던 程復心の 『四書章圖』 元代 初刊本을 발견하여 『학기유편』 범례의 잘못을 지적하는 발굴 보고를 학계에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남명이 스스로 그린 것이라는 17도 가운데 太極與通書表裏圖, 聖賢論心之要圖의 2도뿐만 아니라 第三圖, 誠圖, 易書學庸語孟一道圖, 心爲嚴師圖, 幾圖의 5도를 제외한 나머지 12도 역시 정복심의 『四書章圖彙括總要』에서 옮겨온 것이며, 따라서 24도 중 17도가 남명 스스로 그린 것이라 표기한 범례는 잘못된 것이라 한다.(이승환, 「남명 학기도 자도설 비정」, 고려대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46집, 2012) 향후 이 분야의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남명사상을 경의학(敬義學)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관리에 철저하였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는 일찍부터 강인한 의기(義氣)를 지키고 심성을 수양하는 공부에 힘을 쏟았다. 자신의 담력과 지구력과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물을 가득 담은 대접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밤새도록 서 있으면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일화는 유명하거니와, 항상 허리에 ‘성성자(惺惺子)’라는 방울을 차고 다니며 스스로를 경각시켰고,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은 의이다[內明者敬 外斷者義]’는 경구를 새긴 보검⁵⁾ ‘경의도(敬義刀)’를 차고 다니면서 마음이 산란하고 해이해질 때는 이것을 턱 앞에 받쳐 두어 경계한 일들은 모두 도의실천의 당체(當體)인 자신을 용기 있고 강건하게 만드는 철저한 자기관리였던 것이다.

‘성성자’, ‘경의도’와 더불어 남명의 자기관리법으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신명사도(神明舍圖)」이다. 이 그림은 우리 마음을 한 나라의 도성에 비유하여 형상화한 것인데, 남명의 사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⁶⁾이라 평가되고 있다. 안으로는 조존(操存)·함양(涵養)하는 실지를 나타내고 밖으로는 성찰(省察)·극치(克治)하는 공부를 형상화하여 자신을 경각시킨⁷⁾ 이 도상을 남명은 자신이 거처하는 자리 오른 쪽 벽에 걸어두고 생활한 사실만으로도 남명이 얼마나 자기관리에 철저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도상은 남명이 자득한 바를 손수 제작한 것⁸⁾이라 하지만, 판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편의상, 도상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자세히 나타나 있는 ‘신해본’(1671)의 그림을 근간으로 하여

5) 한국문집총간(31), 『남명집』(이하 『남명집』이라 표기함), 권1, 「행장」, 7우, “常佩金鈴, 號曰惺惺子, 蓋喚惺之工也. … 愛佩寶劍, 銘曰, 內明者敬外斷者義.”

6) 금장태, 「남명의 심개념과 신명사도의 구조」, 『남명학보』 제1호, 남명학회, 2000, 2쪽.

7) 『남명집』 권1, 「행장」, 7우, “嘗作神明舍圖, 繼爲之銘. 內以著操存涵養之實, 外以明省察克治之工.”

8) 『남명집』 권1, 「행장」, 7우, “此先生所自得而手摹畫者也.”

해명코자 한다.⁹⁾

우리 마음을 형상화한 도상은 크게 세 구역, 즉 성(城)의 안과 밖, 그리고 성벽 주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도성 안은 중앙의 북쪽에 신명사(神明舍)라 현관이 붙은 전각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 마음 전체를 다스리는 임금인 ‘태일군(太一君)’이 남면하고 있다. 중앙의 남쪽에는 임금을 도와 전체를 관장하는 신하인 ‘총재(冢宰)’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래 성성(惺惺)이라 적혀 있다. 전체의 중앙에는 ‘경(敬)’을 중심으로 천덕(天德)·왕도(王道)가 적혀 있고, 동남쪽 성벽 안에 ‘국군사사직(國君死社稷)’이라 적혀 있다. 중앙에 ‘경’을 중심으로 천덕·왕도를 제시한 것은 마음이 스스로 다스리는 근본원리를 ‘경’으로 밝힌 것이며, ‘태일군’이 곧 ‘경’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준은 천덕·왕도요, ‘총재’가 경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성성’ 즉 ‘항상 깨어 있음’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과 더불어 외침을 받아 성이 무너지는 위기의 상황에서 ‘태일군’의 대처 원칙은 ‘국군사사직’ 즉 ‘임금은 나라를 지키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벽 주위에는 둥근 성벽에 동·서·남의 세 방면에 관문이 세워져 있다. 그 명칭은 각각 ‘이관(耳關)·‘목관(目關)·‘구관(口關)’으로 각 관문마다 ‘대장기(大壯旂)’가 세워져 있고 그 아래 ‘심기(審幾)’라 적혀 있다. 세 개의 관문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팎을 소통시키는 감각기관을 나타낸 것이며, ‘대장기’를 세우고 ‘심기’라 한 것은 마음이 바깥의 모든 일이나 사물을 접할 때에 선과 악의 기미를 살펴서 예법이 아닌 것을 단호하

9) 『신명사도』의 내용 설명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전병윤, 『남명조식의 신명사도 고찰』, 『남명학연구』 1집, 1991 ; 최석기, 『신명사도·신명사명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4집, 1994 ; 김충렬, 『신명사도·명의 새로운 고석』, 『남명학연구』 11집, 2002 ; 강신표, 『신명사도·명의 새로운 이해』, 『남명학연구』 14집, 2002 ; 전병철, 『19세기 강우 지역 학자들의 신명사도명 해석과 그 의의』, 『남명학연구』 30집, 2010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도상 자체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는 금장태, 『남명의 심개념과 신명사도의 구조』, 『남명학보』 제1호, 2000이 돋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금장태의 도상 분석을 중심으로 해명코자 한다.

게 거부하여 강건하고正大함을 지키는 자세를 의미한다. ‘목관’과 ‘이관’에는 각각 일(日)과 월(月)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눈과 귀가 총명하여 밝게 살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특별히 ‘구관’ 아래에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중요한 정무를 출납하는 역할을 밝혀 ‘승추(承樞)’라 하고, 그 방법으로서 ‘충신(忠信)’의 진실하고 미더움을 근본의 덕으로 삼으며 ‘수사(修辭)’의 말씀을 닦아 굳게 지키고 힘써 행함을 절차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만큼 눈과 귀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비하여, 입은 마음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능동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장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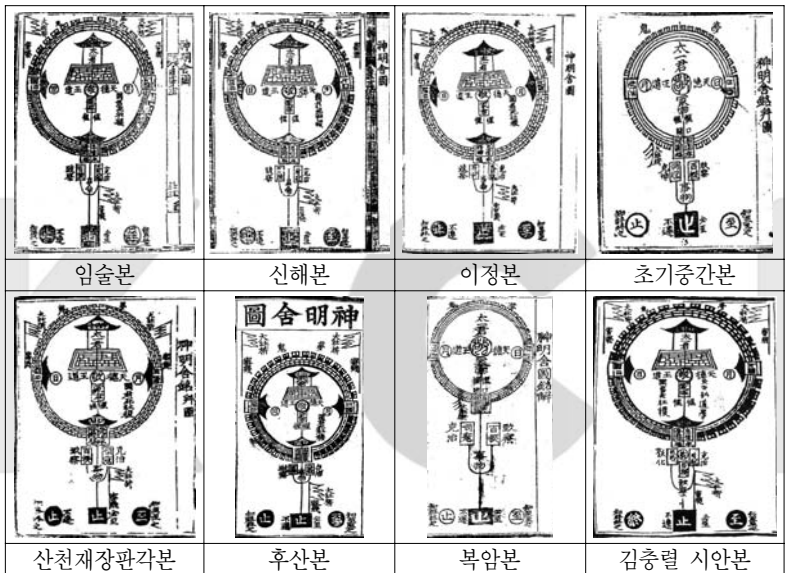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성곽 바깥으로는 남쪽에 ‘대사구(大司寇)’와 ‘백규(百揆)’가 배치되어 있는데, 군사(軍事)를 담당한 관리인 ‘대사구’가 바깥의 ‘사물(事物)’에 이끌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이겨내며[克治], 일반 정무를 맡은 관리인 ‘백규’가 바깥의 모든 ‘사물’이 마음과 접촉하는 것을 살핀대[致察]는 것이다. 또한 남쪽 하단에는 중앙에 ‘지(止)’를 배치하고 좌우로 ‘지(止)’와 ‘지(至)’를 배치하였는데, 중앙의 ‘지(止)’는 반드시 이르러서(必至) 옮겨가지 않고(不遷) 머물러야 하는 자리로서¹⁰⁾ 지선(至善)한 법칙이라 한다면, 그 오른 쪽의 ‘지(至)’는 ‘이를 곳을 알아 이르는 것[知至至之]’이요, 왼쪽의 ‘지(止)’는 ‘마칠 곳을 알아 마치는 것[知終終之]’이다. 그것은 『대학』에서 말하는 ‘지극한 선에 머무는 것[止於至善]’으로 마음을 실현하는 극치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한편 북쪽 상단에 ‘몽(夢)·귀(鬼)’라 적어 놓은 것은 바로 성곽의 전면에 마음을 실현하는 바른 방향의 극치로 제시한 ‘지(止)’에 상반되는 것을 의미한다.¹¹⁾

10) 『신해본』의 도상에는 ‘불천’을 왼쪽의 ‘지(止)’ 오른쪽에 적어 놓았는데, 중앙의 ‘필지’와 더불어 짝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1) 이상의 도상 설명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금장태의 『남명의 심개념과 신명사도의 구조』(남명학회, 『남명학보』 제1집, 2000), 2~3쪽의 도상 해명을 중심으로 필자가 옮겨 실었다. 본고는 도상자체의 복원을 연구의 주된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Ⅲ. 「신명사도」의 출처 및 특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에서 복원할 「신명사도」는 남명의 『문집』 판본뿐만 아니라 후대에 제작된 도상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가지고 표준도라 단정하기가 어렵다.



필자가 파악하기로 지금까지 발견된 「신명사도」라 이름붙인 도상은 모두 10종에 달한다. 하지만 남명의 『문집』¹²⁾에 처음으로 제시된 「입술본」(1622)을 모본으로 하면 대략 8종으로 축약할 수 있으며,¹³⁾ 그것을 도표와 함께

도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명수단으로 자료를 활용한 것이므로 저자의 양해를 구한다.

12) 남명의 『문집』 판본명칭은 학자 간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오이환의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오이환, 『남명학파연구』(상),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0)

정리하면 위와 같다.¹⁴⁾

번호	분류	제작자	제작연도	소재처
1	임술본	조식	1622	남명집
2	신해본		1671	
3	이정보		1700년경	
4	초기중간본		1894년경	
5	산천재장판각본			
6	후산본	허유	1904이후	후산집
7	복암본	조원순	1903이후	복암집
8	김충렬 시안본	김충렬	2002	남명학연구논총 제11집

「임술본」을 기본으로 하여 나머지 7종 도상의 특징들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⁵⁾ 먼저 「신해본」의 경우는 「임술본」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다만 중앙 북쪽의 전각 지붕에 신명사(神明舍)라는 현판이, 그리고 남쪽 관문의 지붕에도 구관(口關)이라는 현판이 새겨져 있으며, 이관(耳關)의 지붕 역시 검게 칠해져 있다.

「이정보」의 경우는 「임술본」에 비해 성곽의 형태가 보다 정교하게 그려졌고 나머지는 「신해본」과 같다. 성곽 전체에 걸쳐 흑백으로 형상화한 벽돌의

13) 8종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도상이다. 나머지 2종 가운데, 하나는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두곡 고응척(杜谷 高應陟, 1531~1605)의 「신명사도」로 남명의 그것과 명칭이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 다른 하나는 『풍천노씨가학십도』의 부록으로 실린 「신명사도」이다. 이 도상은 「방의성도(防意城圖)」와 함께 실려 있는데, 남명의 그것과 비교하면 형태는 오히려 「방의성도」가 더 가깝다. 이 역시 복원 작업을 마쳤으나 여기에서는 「임술본」의 도상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그림만을 취해 8종만을 소개한다.

14) 8종의 도상 가운데 6종(임술본, 신해본, 이정보, 초기중간본, 산천재장판각본, 김충렬 시안본)은 김충렬의 「신명사도·명의 새로운 고석」, 『남명학연구』 11집, 2002, 14~16쪽에서 취했으며, 복암본과 후산본은 각각의 문집에서 취했다.

15) 6종(임술본, 신해본, 이정보, 초기중간본, 산천재장판각본, 김충렬 시안본)의 도상에 대한 비교설명은 김충렬, 「신명사도·명의 새로운 고석」, 『남명학연구』 11집, 2002, 13~17쪽을 참조하고, 빠진 부분을 추가로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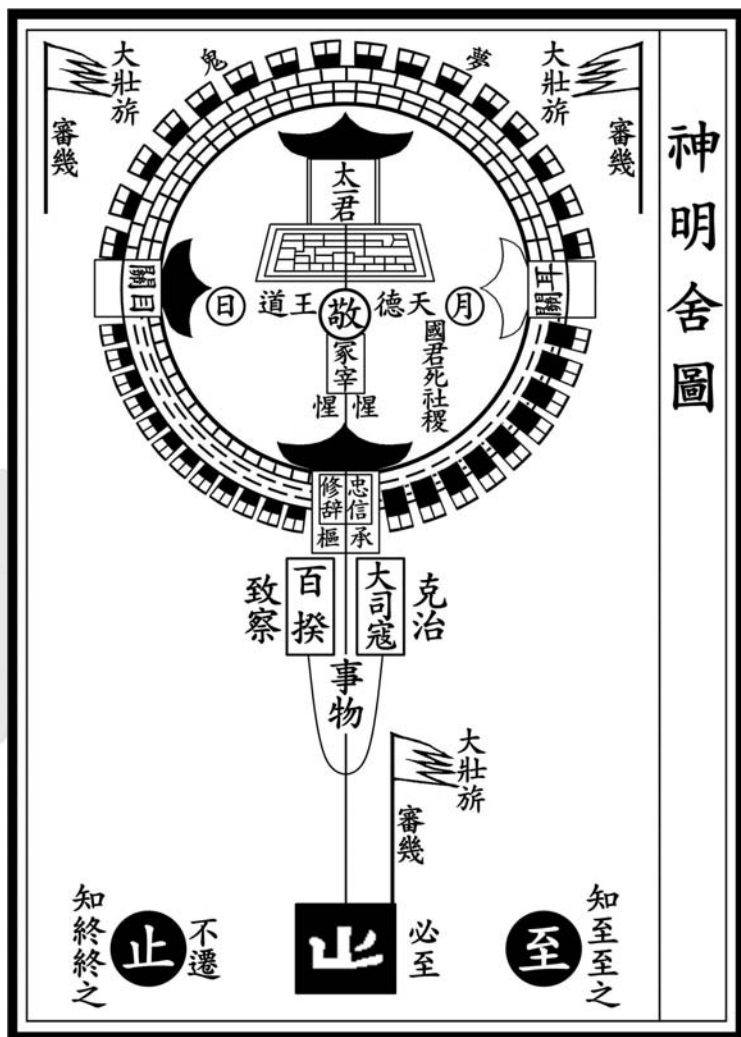
모양을 정교하게 벽돌을 쌓은 형태로 변형하고 목관에서 구관을 거쳐 이관에 이르는 점선형의 성곽도 벽돌형으로 바꾸었다. 초기중간본의 경우는 이전의 그림보다 형상이 대폭 간략해졌다. 먼저 성곽 안쪽을 보면, 중앙의 전각과 현판과 전각의 앞 뜨락을 없앴다. ‘태일군’과 ‘총재’의 자리표시도 없었고 ‘국군사사직’이라는 다섯 글자도 삭제하였으며, 그 대신 ‘경’자를 이전보다 크게 하여 중앙에 자리하게 함으로써 그의 중추적 역할을 특히 그림으로 부각시켰다. 다음으로 성벽 주위를 보면, 우선 바깥의 성 모양의 형태만 남겨두고 벽돌형으로 그려졌던 성벽이 모두 세 줄의 원선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세 개 관문의 현판만 남겨두고 지붕은 없었으며, 목관과 이관 및 일과 월의 위치도 뒤바뀌었다. 각 관문마다 세워졌던 ‘대장기(大壯旂)’와 그 아래 ‘심기(審畿)’라 적은 글자도 삭제되었다. 대신 형태를 바꾸어 구관의 왼쪽에만 대장기를 세웠다. 그 다음 성곽 바깥을 보면, ‘대사구(大司寇)’의 ‘대(大)’자를 없애 그냥 ‘사구’라 칭하고 위치도 백규와 바꾸었다. 그에 따른 극치와 치찰의 위치변경도 따랐다. 남쪽 하단 끝의 모양도 달라졌다. 중앙의 ‘지(止)’ 좌우에 ‘불천’과 ‘필지’를 밀착하여 배치하였고, 양 쪽의 ‘지(止)’와 ‘지(至)’도 양각으로 처리하였다. 산천재장판각본의 경우는 「이정본」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대사구’의 ‘대’자가 삭제되어 있고 ‘신명사’와 ‘구관’의 지붕 안에 흰 공간을 만들어 현판을 양각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후산 허유(后山許愈, 1833~1904)가 제작한 「후산본」은 남쪽 하단 끝 중앙의 ‘지(止)’ 좌우에 ‘불천’과 ‘필지’를 밀착하여 배치한 것 외에는 「신해본」과 같다. 복암 조원순(復菴 曹垣淳, 1850~1903)이 제작한 「복암본」은 「초기중간본」과 대장기의 형태만 다를 뿐 나머지는 같다. 「김충렬 시안본」은 그의 말처럼 「임술본」을 바탕으로 여러 판본에서 변형된 것을 참작해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우선 성 안쪽의 균형 대칭을 고려하여 ‘국군사사직’과 짝하여 ‘현사순도학(賢士殉道學)’¹⁶⁾을 새로 채워 넣고 좌우의 위치를 바꿨다. 성 밖은 성 안의

16) 그림에는 ‘현사홍도학(賢士弘道學)’이라 하고 본문의 풀이에는 ‘현사순도학(賢士殉道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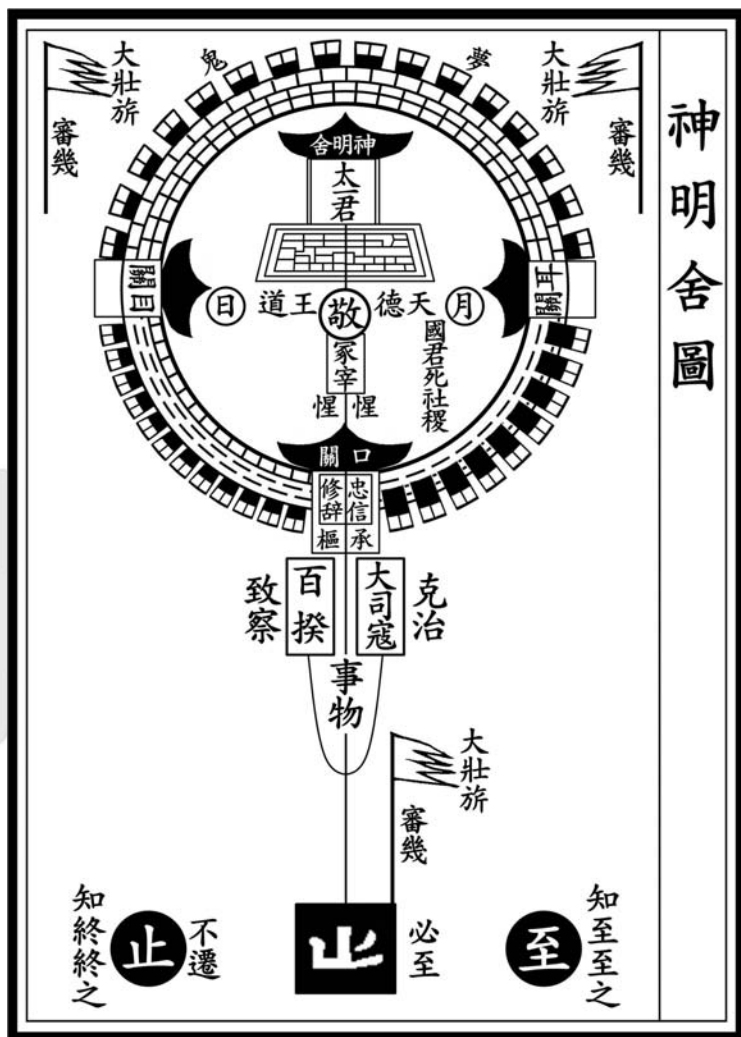
‘경(敬)’과의 대칭을 고려하여 ‘의(義)’를 추가로 삽입했으며, ‘사물’을 없애고 그 자리에 ‘백규’·‘치찰’을 배치했으며, ‘백규’·‘치찰’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사성(司成)’·‘돈화(敦化)’를 새로 추가하여 중앙의 ‘의’를 중심으로 오른 쪽에는 ‘사구’를, 왼쪽에는 ‘사성’을, 그리고 아래쪽에는 ‘백규’를 배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설이 없어 아쉽다. 하단의 끝은 ‘필지’와 ‘불천’을 중앙의 ‘지’ 양쪽에 밀착하여 자리하게 했으며, 왼쪽의 ‘지(止)’를 ‘종(終)’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지(止)’는 ‘지종종지(知終終之)’를 집약한 것이므로, 오른쪽의 ‘지지지지(知至至之)’를 ‘지(至)’라 한 것과의 대칭을 고려한 것이며, 그래야만 중앙의 ‘지(止)’와 구별하기 위해 『중간본』에서 ‘지’자를 전자로 음각한 차별화 의도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IV. 복원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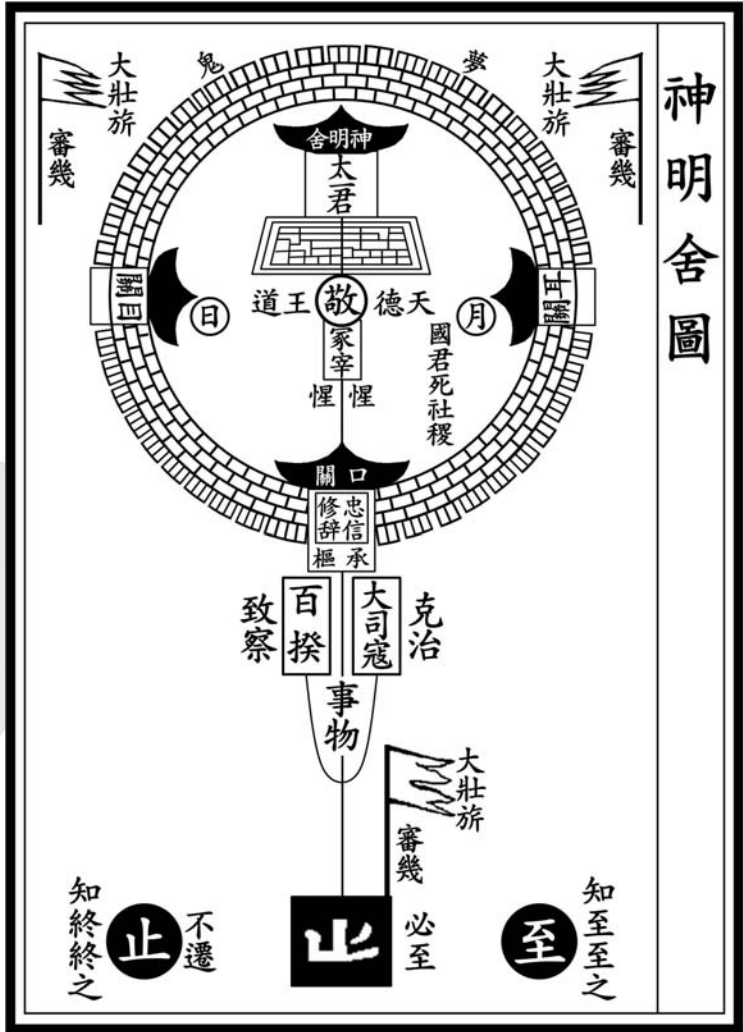
道學)이라 하였는데, ‘대부사관수(大夫死官守)’를 고쳐 이같이 표현했다고 하니, ‘홍(弘)’ 보다는 ‘순(殉)’이 바른 표기라 여겨진다. 따라서 그림도 필자가 임의로 수정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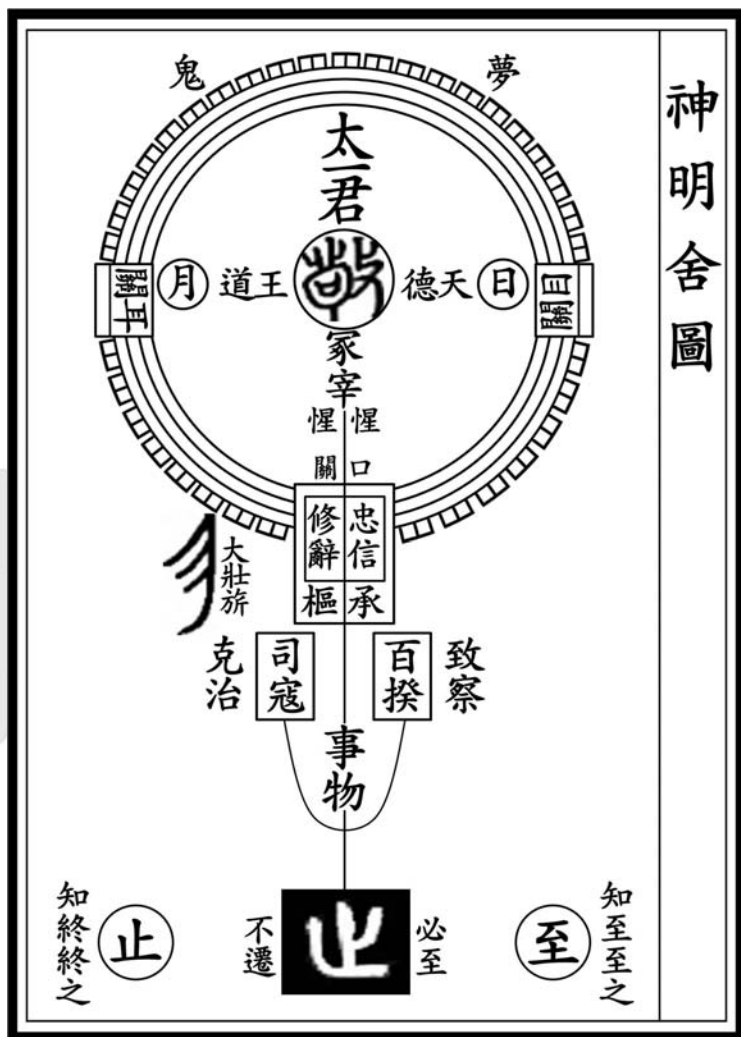
임술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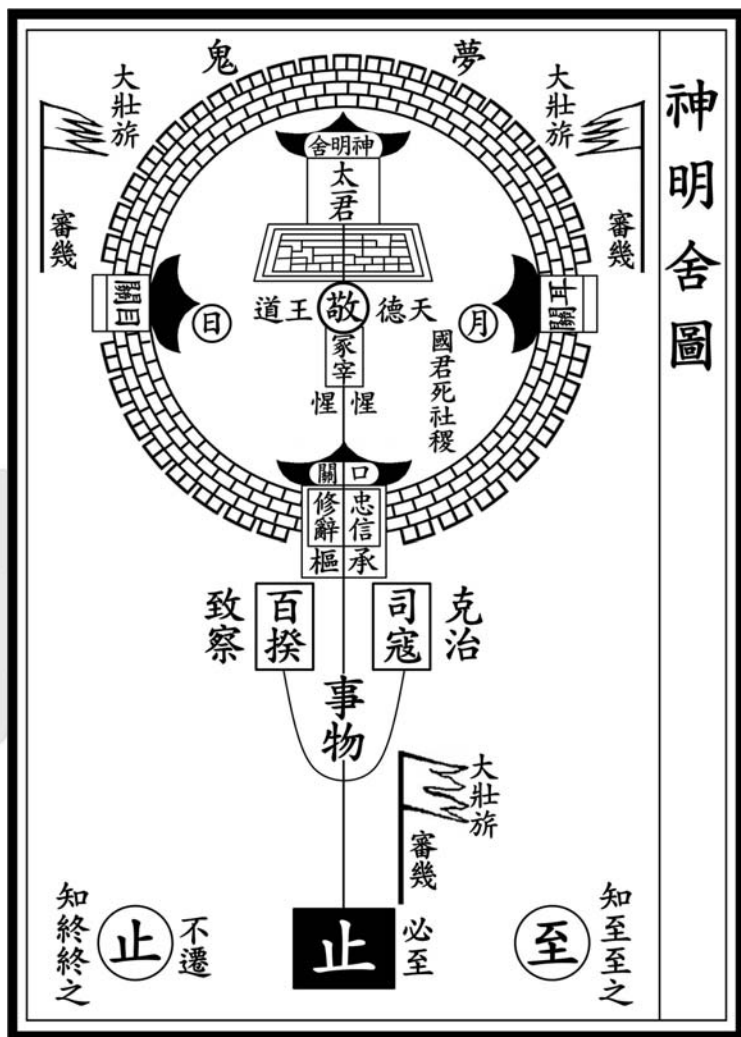
신해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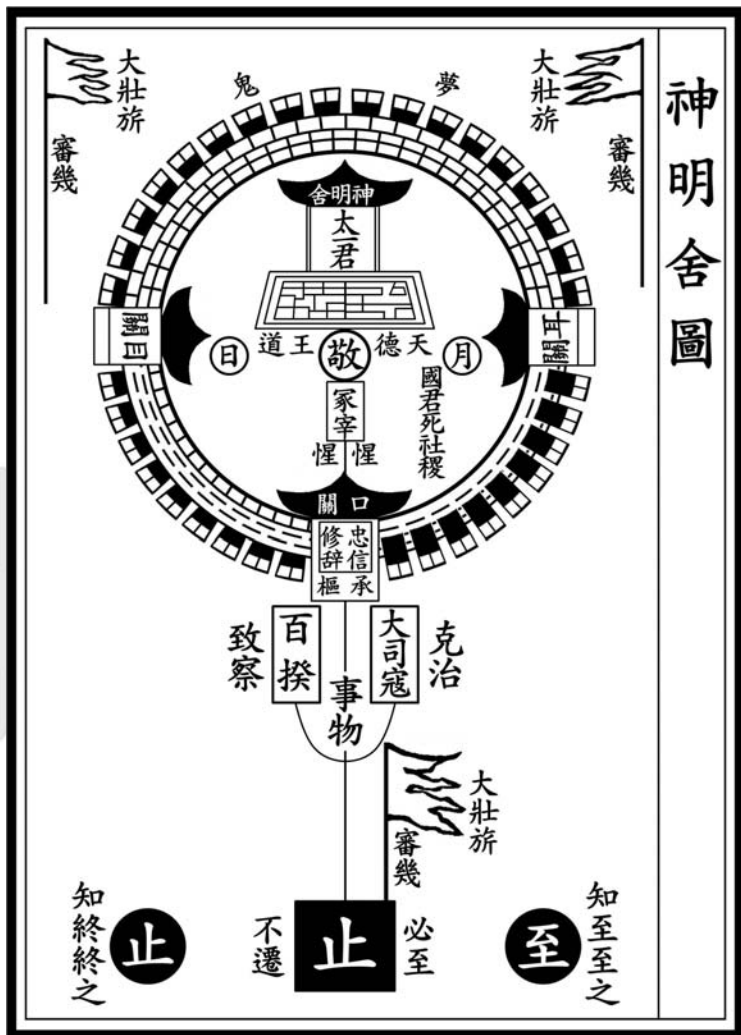
이정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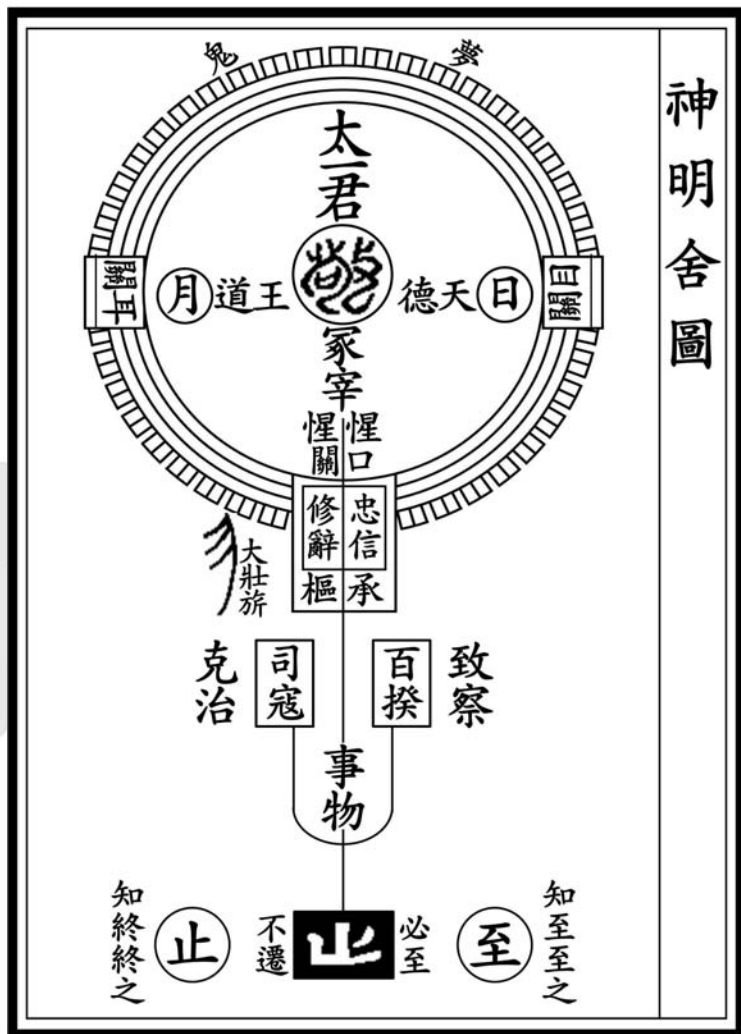
초기중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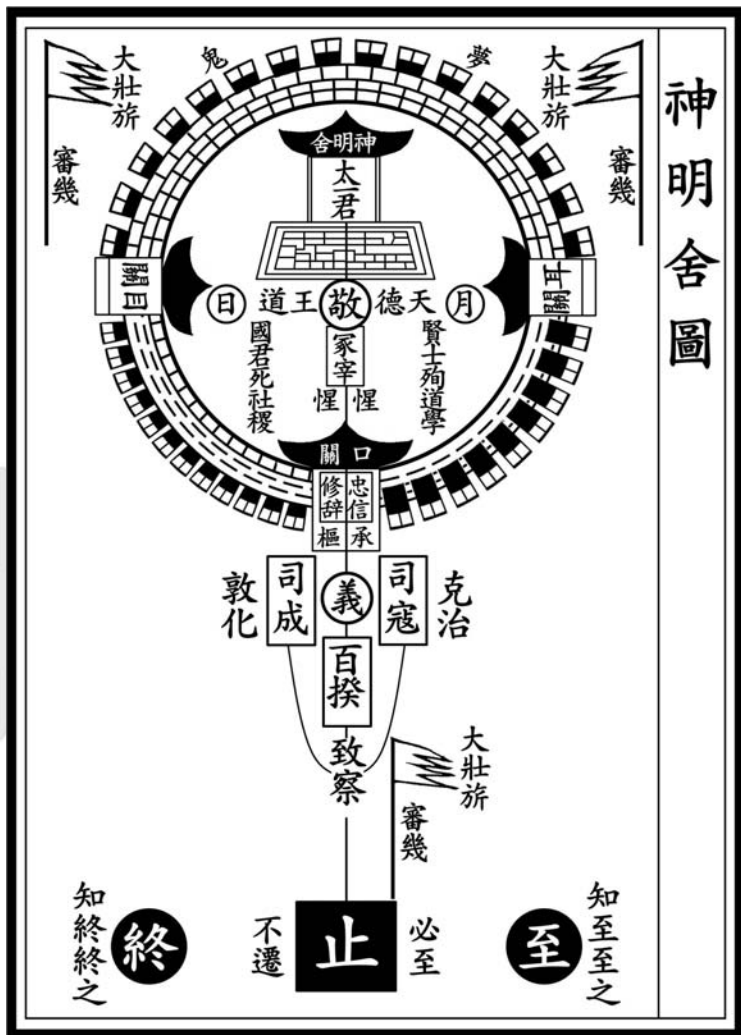
산천재장판각본



후산본



복암본



김충렬 시안본

V. 나오는 말

흔히들 남명을 선비의 전형이라 한다. 선비는 경(敬)으로써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의(義)로써 행위의 근본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선비는 세속의 명리(名利)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늘 경건함으로 무장해 의로운 기개를 유감없이 펼친다. 이 때문에 기상이 곧고 절개가 굳다고 한다. 그래서 선비에게는 지조(志操)라는 것이 늘 붙어 다닌다. 비록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일개 산림처사(山林處士)로서 평생을 초야에서 마쳤지만, 남명은 의로운 기개를 몸소 실천한 선비였다. 그는 당시 훈구척신과 같은 의롭지 못한 권력의 지배 아래에서는 제 뜻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오로지 산림에 묻혀 학문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함으로써 엄격한 지조를 지켰다. 그의 학덕이 널리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하여 그를 불러보았지만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재야의 시각에서 상소를 올려 임금의 실정(失政)을 두려움 없이 직언하는 등 양심에 입각한 공평한 공론을 선도함으로써 행동하는 지성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남명의 삶에서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명사도』는 그러한 남명의 정신세계를 한 장의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었다. 질곡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변개(變改)를 거치는 그의 『문집』 성립이나, 『신명사도』 속의 특히 ‘국군사사직’이라는 다섯 글자를 둘러싼 논란¹⁷⁾을 감안하면, 삭제와 부활에 의한 도상의 형태 변형은 우리 역사의 변화추이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본고에서의 도상 복원은 이에 앞서 수행된 『입학도설』의 도상 복원에서 사용된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원도의 조형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복원에 주력함으로써 완성미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할 것이며,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

17) 주9)에 열거된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문헌

1. 문집

『남명집』, 『후산집』, 『복암집』, 『두곡집』, 『풍천노씨가학십도』.

2. 논문 및 저서

강신표, 「신명사도·명의 새로운 이해」, 『남명학연구』 14집, 2002, 1~31쪽.

금장태, 「남명의 심개념과 신명사도의 구조」, 남명학회, 『남명학보』 제1집, 2000, 1~13쪽.

김충렬, 「신명사도·명의 새로운 고석」, 『남명학연구』 11집, 2002, 1~41쪽.

오이환, 『남명학파연구(상)』, 경상대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0.

이상곤, 『18세기 기호유학을 이끈 호학의 일인자 한원진』, 성균관대 출판부, 2009.

이상곤, 「입학도설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원광대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12집 1호, 2011, 149~180쪽.

이승환, 「남명 학기도 자도설 비정」, 고려대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46집, 2012, 83~130쪽.

전병윤, 「남명조식의 신명사도 고찰」, 『남명학연구』 1집, 1991, 17~58쪽.

전병철, 「19세기 강우지역 학자들의 신명사도명 해석과 그 의의」, 『남명학연구』 30집, 2010, 251~308쪽.

최석기, 「신명사도·신명사명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4집, 1994, 155~193쪽.

3. 웹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nl/index.jsp>)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http://www.ugyo.net/>)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성균관대학교 한국경학자료시스템(<http://koco.skku.edu/index.jsp>)

성균관대학교 한국유경편찬센터(http://ygc.skku.edu/index_2012.jsp)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index.jsp>)

K C I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OF 『SIN-MYONG-SA DIAGRAM』

LEE, SANG GON

As a part of the upcoming project of restoring and preserving those diagrams important as cultural heritage in Korean studies, this study aims to trace to its original form and digitize 『Sin-myong-sa Diagram』, an epitome of Nammyong Josik's philosophy. This conducted study has proceeded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in mind : First, restore and digitize all different types and versions of 『Sin-myong-sa Diagram』 so that its increased legibility can make it more accessible to general public, as well as to researchers. Second, increase its common use and lessen unnecessary duplications in the restoration process by presenting the completed diagram as the standard. Third, after putting the restored and digitized diagram into a database, make the most of it as an educational source, as well as offer it to interested researchers. Fourth, utilize the restored and digitized diagram as the preceding research necessary for the publication of Anthology of Korean Diagrams in the future.

Key Word : Nammyong, Josik, Sin-myong-sa Diagram, restoration, digitization, aesthetics of formative arts